특급! 시베리아횡단열차 러시아 연해주를 찾아서! 4일
3월 28일 출발
마중여행사 문의:02-730-2270

◀◀◀ 1300만 돌파 '극한직업' 제작자 김성환 대표·배세영 작가

"배작가는 코미디 이야기꾼!" "대표님 성공스토리 영화로?"

◀ '국민코미디'로 등극한 영화 '극한직업'의 흥행 뒤에는 시나리오를 맡은 배세영 작가(왼쪽)와 제작자 김성환 어바웃필름 대표가 있다.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이해리의 듀얼인터뷰

기록이 멈출 줄 모른다. 1000만 관객을 모으더니 어느새 1300만 명을 넘어섰다. 12일 기준 역대 한국영화 흥행 5위. 여기서 끝날 분위기도 아니다. 영화 '극한직업'(감독 이병헌·제작 어바웃필름)이 곧 '국민코미디' 자리에 등극할 태세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제작자 김성환 대표(45)와 시나리오를 각색한 배세영 작가(44)가 의기투합해 작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광경이 지금 극장에서 펼쳐지고 있다. 11일 서울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이를 "남의 일 같다"고 덤덤하게 말했다.

요즘은 영화 제작자와 작가들도 언론매체에 자주 등장하며 유명세를 얻기도 하지만 그에 비하면 김 대표와 배 작가는 '숨은 고수'에 가깝다. '극한직업'으로 '초대박' 흥행을 일구기까지 차근차근 길을 걸어왔다.

특히 배세영 작가는 지난해 500만 관객을 모은 '완벽한 타인'의 시나리오를 쓰기도 했다. 2007년 '사랑방 선수와 어머니'로 데뷔해 '킹콩을 들다' 등 코미디영화에 주력해 온 그는 tvN 'SNL코리아'의 히트코너 '여의도 텔레토비'로 정치 풍자 열풍을 이끈 주역이기도 하다. 김성환 대표 역시 투자와 제작을 거치면서 '과속스캔들' '최종병기 활' 등에 참여해온, 20년 경력의 베테랑이다.

이들이 인연은 2010년 시작됐다. 배 작가가 쓴 '적과의 동침'을 당시 김 대표가 몸담고 있던 투자사가 영화화하면서다. 그러다 김 대표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을 통해 발굴한 문충일 작가의 '극한직업' 시나리오 초고를 보고 제작을 결심, "재미있는 이야기꾼"으로 통하는 배 작가에게 각색을 부탁하면서 작업을 시작했다.

마약반 형사들이 치킨 집을 차려 범죄조직을 소탕한다는 줄기는 초고와 같지만 완성된 영화의 캐릭터와 이야기 전개, 각양각색의 에피소드는 대부분 배세영 작가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다.

"제안을 받을 땐 도저히 집필할 수 없는 일정이었지만, 무리해서 수락했다. 워낙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고(웃음), 사실 김 대표의 제안이니 망설일 이유도 없었다."

"배 작가는 남에게 싫은 소리를 못한다. 늘 웃는다. 불편한 것도 싫어한다. 그래서 따뜻한 코미디 장르와 잘 맞는지도 모르겠다."

의기투합한 뒤 시나리오는 순식간에 완성됐다.

"주조연 구분 없이 다섯 명의 주인공 형사들 각기 동등한 역할을 줘 마치 '한국형 어벤져스' 같은 느낌이 나길 원했다"는 작가는 "치킨집이 위기를 겪은 뒤 닭을 튀기는 일이 형사들의 생업이 되고, 그 일을 지키려 몸부림치는 과정의 아이러니를 생각했다"고 밝혔다.

입소문 확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수원왕갈비통닭'도 배 작가의 아이디어다. 마침 배 작가의 집필실이 경기도 수원에 있었고, 끼니마다 통닭과 갈비를 놓고 뭘 먹을지 고민할 때도 잦았다. 갈비인지 통닭인지 모를 그것은 "둘 다 먹고 싶은 염원에서 탄생한 메뉴"라고 했다.

형사일 땐 '대충' 일하다 치킨 집을 차리고선 '목숨 걸고' 나서는 형사들의 모습은 영화의 재미를 높이는 대목이다. 김성환 대표 역시 처음 시나리오를 보고 "형사가 소상공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마음이 움직여 제작을 결심했다"고 돌이켰다.

"소상공인은 목숨을 걸고 일한다는 정서가 마음을 울렸다. EBS 프로그램 '극한직업'을 한 회도 빼놓지 않고 보는 애시청자이다. 영화 일이 힘들다 느낄 때도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분들을 보며 반성도 한다."

김성환 대표

'과속스캔들' 등 참여 베테랑 제작자
"늘 웃는 배작가는 코미디와 잘 맞아 1300만 돌파? 왠지 남의 일 같아요"

배세영 작가

영화 '완벽한 타인' 이어 연속 히트
"왕갈비통닭, 둘 다 먹고 싶어 탄생 영화 속에 아들·딸 슬쩍…몰랐죠?"

▼영화 '극한직업'

●워킹맘 작가 "등장인물에 딸 이름 넣기도"

배세영 작가는 지난 3년 동안 14편의 시나리오를 집필할 만큼 다양한 소재를 갖고 있다. 하지만 그는 "굳이 새로운 걸 찾으려 하지 않는다"고 했다. "주변의 일상에 소재가 넘친다. 이미 나온 이야기라도 다른 상황에서, 다른 캐릭터로 접근하면 새로워진다"고 믿는다.

지금껏 쓴 시나리오도 대부분 주변에서 보고 듣고 저장해둔 이야기다. 2014년 개봉한 영화 '우리는 형제입니다'의 경우 각각 목사와 무속인인 자신의 두 외삼촌 할아버지들의 실화를 옮긴 시나리오다.

배세영 작가는 중학교 2학년생인 아들과 여섯 살배기 딸을 둔 엄마이기도 하다. 첫째가 100일이 갓 지날 무렵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터로 나가야 했던 그는 지금 참여하는 영화에 단역이나 사진으로나마 아들의 얼굴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등장인물 이름에도 '예진'이란 딸의 이름을 넣는다고 했다. 이유가 있다.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어릴 때 우린 엄마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아쉬워하면 슬쩍 그 영화들을 틀어주려고 한다.(웃음) 시나리오를 쓸 때도 엄마는 너희를 많이 생각했다는 걸 느끼게 하려고 말이다."

20년 가까이 영화 일을 해온 김성환 대표에게도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다. 초창기 영화 투자배급사에서 투자담당자로 일할 땐 딜레마도 겪었다. "투자담당으로 감독이나 제작자가 공들여 준비한 작품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했다. 거절 못하고, 싫은 소리도 못하는 성품은 김 대표와 배 작가의 공통점으로 보였다.

두 사람은 요즘 각별한 감상에 젖을 때가 있다. 배세영 작가는 며칠 전 아버지가 위독했던 상황을 담담히 털어놨다. "요즘 아버지가 '극한직업' 때문에 아주 행복해 하셨다.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져 걱정이 되면서도 '이번 영화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란 마음도 들었다"고 했다.

김성환 대표도 비슷하다.

"어느 딸과 아버지가 10년 만에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다더라. 아버지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몇 년 만에 봤다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 감격스러웠다."

두 사람은 호흡을 맞춘 또 다른 코미디영화 '해치지 않아'를 곧 내놓는다. 바빠지더라도, 협업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배: "김 대표님은 친정오빠 같다. 대표님을 두고도 영화를 한 편 쓸 수 있다."
김: "어떤 장르? 혹시 신파?"
배: "어떤 한 인간이 영화판에서 거둔 성공스토리!"
김: "너무 전형적이잖아."
배: "'극한직업'도 전형적이다. 형사들이 마약범 잡는 이야기이잖아. 하하!"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연예뉴스 HOT 5

정유미·나영석 불륜설 유포자 입건

정유미

연기자 정유미와 나영석 PD의 '불륜설'을 작성하고 유포한 이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방송작가 이모 씨와 IT업체 직원인 또 다른 이모 씨 등 9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스마트폰 메신저 메시지로 정유미와 나 PD의 '불륜설'을 제기하거나 유포한 혐의다. 정유미와 나 PD는 이들에 대해 "선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병헌 '…스타 체어' 캠페인 참여

이병헌

배우 이병헌이 자신의 이름을 내건 극장 좌석으로 관객과 함께 1년 동안 소외된 아이들을 돕는다. 이병헌은 최근 롯데시네마의 '해피엔딩 스타체어' 캠페인 첫 참여 배우로 나서 향후 1년간 매출액을 경기 성남하은지역아동센터에 기탁한다고 극장 측이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롯데시네마는 성남중앙점에 그의 이름 이니셜(L)과 생일(7월12일)을 반영한 'L열12번' 좌석을 '해피엔딩 스타체어'로 지정했다.

김병옥, 주차장서 음주운전 적발

김병옥

배우 김병옥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김병옥은 12일 오전 1시께 경기도 부천시 한 아파트 단지 지상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김병옥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김병옥은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으로 아파트에 도착한 뒤 주차하려 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13일 방송예정이던 예능프로그램 '한끼줍쇼'는 결방하고, 출연 중이던 드라마 '리갈하이'는 하차를 논의 중이다.

몬스타엑스, 스티브 아오키와 협업

몬스타엑스

그룹 몬스타엑스가 세계적인 DJ 겸 음악프로듀서 스티브 아오키와 협업한다. 이들은 스티브 아오키와 함께 작업한 앨범 '테이크.2 아 히어(TAKE.2 WE ARE HERE)'를 18일 내놓는다. 스티브 아오키는 DJ 겸 음악프로듀서로,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린킨 파크, 돈 디아블로 등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아티스트들과 작업해왔다. 그는 앞서 함께 작업해보고 싶은 케이팝 가수로 몬스타엑스를 꼽은 바 있다.

배진영 고교 졸업…팬들 510만 원 기부

배진영

그룹 워너원의 배진영이 12일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팬들은 선행으로 이를 축하했다. 배진영은 이날 서울 예장동 리라아트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졸업장을 받았다. 이에 그의 팬카페 'PEAR' 회원들은 510만 원을 국제구호개발 NGO인 세이브더칠드런에 기부했다. 510만 원은 배진영의 생일인 5월10일을 기념하는 것이기도 하다. 1월 콘서트로 그룹 워너원 활동을 마무리한 배진영은 솔로 활동을 준비 중이다.

편집 | 김청조·김대건 기자